

제주 이주생활 & 여행 에피소드 <뽀fun 어스토리 '이기자 에세이'>

“뽀fun 어스토리 '이기자 에세이' 는, 제주로 이주한지 4년차인 '이기자' 가 겪는 낯설고 설익은, 여전이 렌트카족 여(許)씨 같은 새 주민, 또는 선 주민과의 소통에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낯설기에 신선한 제주의 짝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엄청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라도 찾는다면 더

오름의 그림자와 한라산에

별밤사진관 포토그

제주 별밤을 배경으로 나만의 '갬성 사진'찰칵~

'밤바다에서 별빛과 LED 조명이 만나, '밤하늘을 도화지 삼아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마법'... 별밤사진관의 사진들은 다양한 수식으로 표현된다. 별밤사진관에서는 제주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라이트 페인팅 블러쉬, LED봉으로 천사 날개, 나만의 메시지 등을 그려 넣어 라이트 페인팅 기법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라이트 페인팅 기법이란 카메라의 셔터를 열어 놓은 상태로 빛을 이용하여 허공에 그림이나 글을 사진 속에 넣을 수 있는 촬영 기법이다.

JIBS '오마이 인생샷' 포토그래퍼로도 참여했던 별밤사진관 전현석 대표를 만났다. 밤에 찍은 사진으로 상을 받은 적이 있었던 전 대표는 제주에 내려와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별밤 사진'촬영 이벤트를 시작했다. 말할 필요 없이 반응이 뜨거웠고 '별밤사진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야간 관광 상품으로까지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별밤 사진'은 합성사진이 아니라 실사이면서도 환상적이고 낭만 가득한 '갬성 사진'을 소장할 수 있는 '낭만 체험' 야간 이벤트이다.

역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전현석 대표는 현재 별밤사진관 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으로 360 VR과 드론 항공촬영 등을 이용한 영상콘텐츠의 촬영기법 R&D와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 그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한 영상 촬영에 몰두하는 데는 단면의 사진을 넘어 입체적 영상을 통해 자신이 본 하늘과 숲 등 자연의 모습을 가감 없이 온전하게 공유하고 싶기 때문이다.

평소 전 대표는 스스로 끈기가 부족하고 쉽게 싫증을 잘 내는 성격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사진과 영상은 그에게 지금까지 가장 오래토록 탐구하게 하고 열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전 대표는 자신의 시선과 감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좋아요', '멋져요', '잘 한다' 등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관심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제주를 운명처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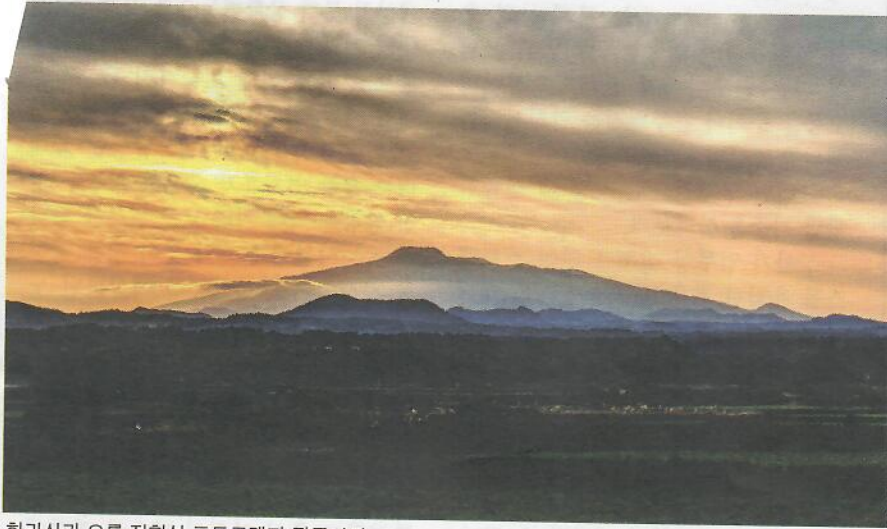


별밤사진관에서 제주의 밤하늘을 배경으로 라이트 페인팅 기법으로 촬영한 사진.

“제주살이와 사람들 이야기를 여행이라고 하겠다. 새 주인인 '이기개'가 만나는 단상, 다양한 삶의 모습과 시련 등을 암해하며 누구라도 '잠시 멈추어' 생각에 알 게 없는 '이기개 에세이' 가 될 수도...”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래퍼 전현석



한라산과 오름 전현석 포토그래퍼 작품사진.

전현석 대표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때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평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영화 '원령공주'의 배경이 되었던 숲에 가고 싶었다. '원령공주'의 배경인 일본 규슈의 '야쿠시마 원시림'은 잠시 휴가를 내고 다녀오기에는 시간과 금전적, 체력적으로 선뜻 나서기가 무리였다.

그는 제주를 선택했다. 첫 번째 여행에서 김영갑갤러리를 서성이고 오름의 그림자가 참 좋았다. 두 번째 주말여행에서는 이중섭갤러리를 가기로 정했다. 금요일

일 마지막 비행기로 제주에 도착해 차를 렌트하고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단 이중섭갤러리로 향했다. 어두운 밤에 마주하는 꼬불꼬불한 산길(당시는 몰랐지만 성판악을 넘는 5.16도로이다) 운전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운전할 자신이 없어 그는 주차장 같은 곳에서 비박을 했고, 아침에 눈을 뜨니 한라산 성판악 주차장이었다. 물 한 병과 카메라만 들고 정상에 올랐다.

'이게 운명인가'. 현석씨는 '원령공주'가 숲에서 사슴신을 만나는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한라산 정상에서 조릿대 사이를 헤치고 나오는 노루와 눈이 마주쳤다.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노루의 눈빛에 자신의 마음은 불편함이 사라지고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 길로 직장을 정리하고 제주로 이주했다. 그는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풍경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다'며, 자신을 빨리 추스르게 해 준 오름의 그림자와 한라산에 지금도 감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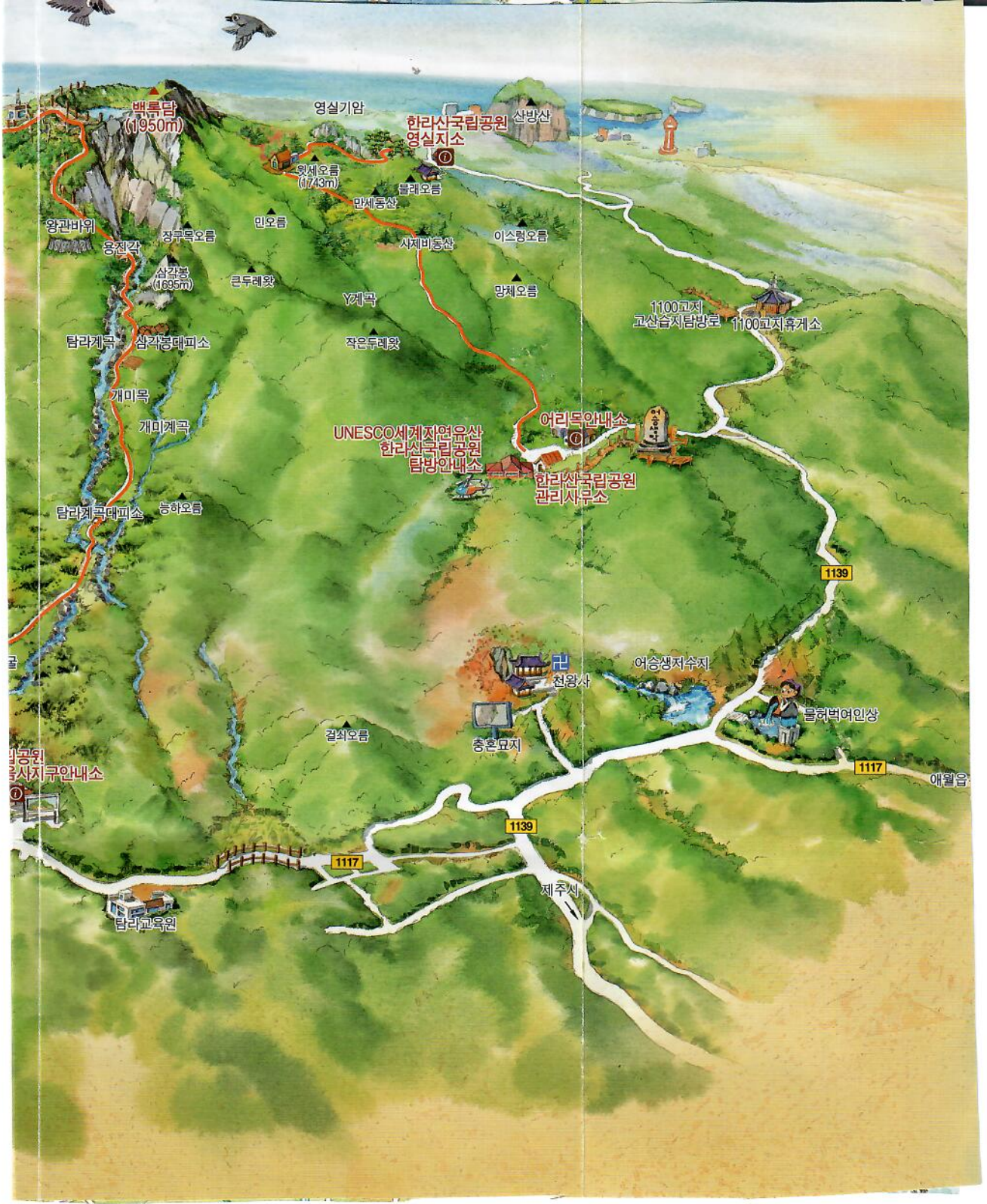
한라산 중턱에서 | Halfway up the Hallasan Mountain | 汉拿山半山腰

섬이야기



! 물놀이를 했다는 화구호 백록담과 기암절벽 영실기암,
 사계절 내내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살아있는
 반아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백록담 (1950m)

영실기암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지소

산방산

사라오름

왕관바위

정규목오름

민오름

볼레오름

이스형오름

사라악약수터

진달래밭대피소

홍불은오름 (1391m)

삼각봉 (1695m)

큰두레왓

만세봉산

사재비동산

망제오름

돌오름

탐라계곡

삼각봉대피소

Y계곡

작은두레왓

UNESCO 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어리목

한라산
관리사

탐라계곡대피소

능하오름

쿠린굴

국립공원
관음사지 구안내소

결쇠오름

천왕

중혼묘지

관음사

제주컨트리클럽

탐라교육원

제주세

1131

1117

1117

1139

산업정보대학

검문소 제주세

해미안
 운영시간 : 매일 06:00 - 21:00
 정기휴일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네비주소 : 제주도 제주시 일주서로 7353
 문의 : 064-713-2001

운영시간 : 매일 09:30-18:30 (매표 마감 17:30)
 네비주소 :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1
 문의 : 064-746-3060

205

